

英·佛·中 현금대체 통화 개발중 ... 규제정비 한창

디지털통화 전쟁

(中) 한발 앞서가는 세계

최근 세계 각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가 현금을 대체할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부상하는 듯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화폐라기보다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투기자산이라는 것이 국내외 정책당국과 학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주요 국가의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화 발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그래서다. 가상통화에서 초래될 수 있는 금융불안을 방지하는 한편, 전자 화폐 수단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신뢰성 높고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통화는 차세대 결제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선진국, 디지털 통화 개발 '박차'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크스방크는 현금 이용 비중 하락 등을 배경으로 2016년부터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e-Krona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기술적 검토와 테스트를 완료하고 2021년께 여론을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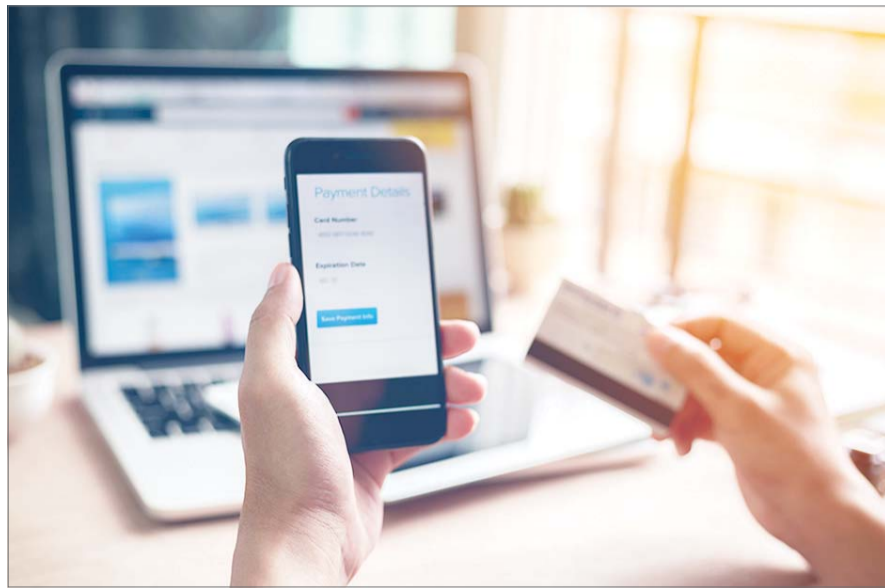
스웨덴 2021년 CBDC 발행 속도 佛 1000유로 이상 현금결제 금지 각 감독당국 규제 체계 정비 노력 국제적공조 통한 대비책 마련해야

해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국 영란은행(BOE)은 지난 2015년부터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을 중요한 연구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CBD C의 금융안정성과 위험요인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지난 2015년부터 비(非)현금결제의 비중이 90%를 넘자 정부 차원에서 1000유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 현금결제를 금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지난 2016년 12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통화를 은행간 결제에 적용했으며, 지난해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개발을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개발도상국인 우루과이는 2017년 국영 이동통신사 고객 1만 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스마트폰 상의 전자지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를 시



글로벌 주요 국가가 현금을 대체할 디지털 통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범 발행했다.

물론 미국·덴마크·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앙은행 차원에서 CBDC를 도입하는 것은 아직 그 이익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개발하더라도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한 수준에 그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 또한 C BDC 등 디지털통화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 통화가 미래 금융시장에서의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흐름에는

이견이 없다.

◆세계 금융당국, '디지털 통화' 제도권 편입 노력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통화 개발에 적극적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 또한 디지털 통화 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규제체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각 감독당국이 정비를 추진 중인 디지털 통화의 규제체계에는 ▲디지털통화의 성격규정 ▲불법행위 차단 ▲소비자 보호대책 마련 ▲과세방안 등이 있

다. 디지털 통화가 차세대 결제수단으로 떠오르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마련해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

호주와 유럽연합(EU)의 경우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ICO신용사기를 차단하는 등 디지털 통화의 부정거래를 감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디지털 통화 거래소에 대한 면허제를 실시하거나 은행 계좌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불법적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면서 디지털 통화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한편 디지털 통화의 경우 국경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디지털 통화가 갖는 '무(無)국경성'을 감안할 때, 그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육성 및 규제와 관련된 인프라에 있어 각국이 합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또한 디지털 통화 시장의 혁신을 촉진시키면서도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 美 성장속도 둔화

미국, 4분기 소매판매 증가세 둔화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중국에 이어 미국도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이 31일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본재 수주와 수출은 전기 대비 감소하는 등 성장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

올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로 전환했지만 전월 중 큰 폭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성장세 둔화 추세가 완만하게 이어지겠지만 노동시장 호조를 바탕으로 2%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유로지역은 생산과 투자 부진으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됐다. 올해 1월 산업생산이 증가로 전환했지만 전년 동월 수준을 하회했고 자본재 수주도 2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만 양호한 노동시장, 확장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은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성장둔화 흐름을 지속했다. 소비, 투자 등 내수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

했지만 1~2월 중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성장하방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기타 신흥국 중 인도, 브라질은 수출 부진으로 산업생산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아세안 5개국과 러시아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개선됐다.

반면 일본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흐름을 유지했다. 1월 중가계소비는 양호한 고용여건 등을 배경으로 전월 대비 0.9% 증가한 반면 산업생산은 수출 부진 등으로 전월 대비 3.4% 감소했다.

주요 기관들은 생산 및 수출 둔화 등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도 견조한 설비투자,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 전망을 1.0%에서 0.8%로,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0.7%에서 0.6%로 내렸다.

한편 3월 중 국제유가는 완만하게 상승했다. 공급 측면에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이행, 베네수엘라의 원유생산 차질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18.3/4	4/4	11월	12월	19.1월(4)
GDP(2)	3.4	2.6	-	-	-
소매판매	1.1	0.2	0.0	-1.6	0.2
자본재수주	1.9	-1.0	-1.1	-0.8	0.8
수출(통관)	-1.7	-0.9	-0.9	-2.7	-
실업률	3.8	3.9	3.7	3.9	4.0 (3.8)
소비자물가(3)	2.6	2.2	2.2	1.9	1.6(1.5)

주: 1) 전년대비 증가율. 2)전기대비 연율. 3)전년동기대비 상승률. 4) ()내는 19.2월중 /자료=한국은행



'사막에 핀 장미' 현대건설, 카타르 국립박물관 준공

현대건설이 시공한 카타르 국립박물관이 정식 준공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카타르 수도 도하 중심부 지역에서 '카타르 국립박물관' 개관식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카타르 국립박물관 공사는 도하 중심부에 국립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옛 왕궁의 남쪽과 북쪽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4만6596㎡ 규모의 박물관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건설

한은 "韓경제, 대외의존도 4년 만에 최고"

국민 총소득 비 수출입 비율 86.8% 반도체 호황·국제유가 상승 등 요인

지난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유가 상승 영향으로 한국 경제 대외의존도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세계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외부여건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86.8%로 전년 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4년(8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2011년 113.5%에서 2016년(80.9%)까지 5년 연속 하락하다가 2017년 84.0%로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상승했다.

지난해 GNI 대비 수출 비율은 45.9%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올랐고, 수입 비율은 40.9%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호황이 이어지며 수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와 관련한 원자재·중간재 수입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수출액은 6049억달러, 수입액은 5352억달러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도 수출입액이 불어난 데 영향을 줬다. 한국 경제는 원유를 수입한 뒤 이를 가공해 수출하는 구조여서 유가가 오르면 수출입액도 늘어난다.

한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10월까지 계속해 오를 영향으로 수입이 늘었

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내수 시장 규모가 작고 수출이 성장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와같은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는 외부 여건에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로 수출입 증가를 낙관하기 어려워져 국내 경제 성장세에도 힘이 빠질 우려가 많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역의존도가 높으면 세계 경기가 호황일 때 한국 경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반대의 경우 부정적인 여파가 크다"며 "올해 우리나라 수출입증가율은 0%대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